

## 생권 윤리학으로 읽는 『종달새의 노래』

변 효 정  
(대진대학교)

**Byun, Hyojeong.** “Reading *The Song of the Lark* with Eco-ethica.”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2 (2019): 39-59. This study starts from the point that Eco-ethica highlights the problem of enlarging individuals’ ethics in the modern society. It is meaningful that Eco-ethica focuses on making people think seriously about personal ethics while they keep and protect a variety of environments around them. This vision can help people to embrace essential ethics of care, practice, and nature and ultimately pursue social changes. In the work, Thea, the protagonist, develops her artistic intuition and reaches the artistic awakening through overcoming materialism, nocism, and morally crippled artists of chaotic Chicago. Thus, she shows how art into a secular state can revive and have the meaning of true loyalty in an artist’s whole life. In the process, Thea’s retreat to the Panther Canyon, a definite antimodern escape, develops a balanced life of her by making her reach the pinnacle of her music acquiring a singer’s creative growth. The people who help her to achieve her own dream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keeping her own Eco-ethica. In the end, her deep-rooted artistic vitality represents it comes from extensive ethics and further, as a guide in diagnosing the present and future of our time, it ultimately promotes the right direction of art and co-prosperity of mankind by establishing ethical indicators of human existential values. (Daejin University)

**Key Words:** Eco-ethica, personal ethics, social changes, artistic awakening, true loyalty

## I. 서론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자본주의가 갖는 파괴성 및 사회의 권위적인 통제방식에 따라 윤리의 문제가 산적한 21세기 현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인류의 생권 수호의 문제를 예술과 인간의 윤리적 책임에 집중하여 ‘생권 윤리학

(eco-ethica)' 이론으로서 진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생권 윤리학은 생권 도덕학이라고 불리기도하며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이마미치 도모노부(Imamichi Tomonobu)는 “개인윤리의 심화를 요구하는 것”(13)이 생권 윤리학이라고 기술한다. 기술사회의 새로운 윤리학인 생권 윤리학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 사회에 만연한 폭력, 생명 경시 풍조 등에 따라 전 인류의 필수 과제로 부상하여 인류가 새롭게 재건해야 할 미래의 행위의 지표를 세우는 학문이다. 인간의 삶의 질과 생존이 위협을 받는 21세기 현 시점에서는 인간의 새로운 겸손의 자세가 요구되는 바, 인간은 자연의 관리자일 뿐이라는 대물윤리를 지향하는 생권 윤리학은 문학을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그 의미가 있다. 물론 생권 윤리학은 얼핏 생태윤리나 자연 중심주의 윤리와 그 궤를 함께 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후자는 자연적 개체 내지는 생명 중심체의 도덕적 지위 그리고 그들만의 내재적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어 끊임없이 대상의 확대를 지향하는 생권 윤리학의 다방면에 걸친 개인 윤리의 확장 문제를 간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출발한다. 이에 본 연구는 폴 에를리히(Paul R. Ehrlich)가 “생권 윤리학의 현재는 사실상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 걸쳐 관통하고 있다”(417)고 지적한 점에 착안하여 생권 윤리학이 단순히 환경윤리학과는 달리 인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개인윤리의 심화를 예술을 포함한 다분야에 걸쳐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윌라 캐서(Willa Cather 1873~1947)의 『종달새의 노래』(*The Song of the Lark* 1915)는 한 프랑스 그림에서 어린 소녀가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에 처음으로 눈을 뜨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지 세이벨(George Seibel)은 “캐서의 관심은 음악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음악과 관련한 인간의 성품에 있었다”(Bennett 152 재인용)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작품은 국내에서 한창 이슈가 된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및 예술계 거장들의 비윤리적인 행위와 예술인들의 희생 그리고 현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음악인들의 비도덕적인 악행의 상황에 견주어 예술가들에게 있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진정으로 아름다운 정신이 무엇인지를 되물게 한다는 점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한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곧 본 작품 속에서 물질주의가 만연한 어수선한 분위기의 시카고를 통해 조명되며 음악과 예술을 속화시키는 부패한 인

물들에 한탄하는 주인공 티어 크론보그(Thea Kronborg)의 진정한 생권 수호자로서의 개척자적 의지로 환원되어 예술인의 삶 속에서 진정한 충의가 갖는 덕(value)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하고 그 해결점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단순한 감상주의가 아닌 진정한 예술 추구의 정신과 예술적 덕의 발휘를 통해 예술가들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 통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행위의 사정이 늘어난 현대에 기호의 덧에 빠진 인류는 사회가 제시하는 지시적 사항에만 충실하면 증대된 효율과 편리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위를 보장받는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류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하나의 음풍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캐서의 『종달새의 노래』에 대한 그간의 국내 연구가 자연, 여성 풍경, 시카고 예술계의 속물성, 주인공의 혐오극복, 창의적인 여성 예술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것에 더해 주인공 티어를 위협하는 우리주의로 변역되는 노시즘(Nocism)으로 몽친 시카고 예술계의 극단적인 자율주의와 이로 인해 그녀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을 진단하되 자연의 덕을 흡수하며 광의적인 미의 실천과 이상적인 대물 윤리의 정신을 보여주는 티어의 행보에 집중하고자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티어 주변의 공생의 인물들 및 그들이 보여주는 상생과 평화와 사랑의 마음이 결국에는 티어가 꿈꾸는 진정한 예술적 토대로서의 오토피아(Oughtopia)를 일궈내는 과정임을 살피되 현 시대의 주요 사안을 비추는 끝나지 않은 예술계의 혼란 속에서 문학이 나아가야 할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편에 거쳐 활력과 힘이 넘치고 캐서가 지향하는 예술 정신과 존재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돌봄의 중요성이 배어 있는 이 작품을 통해 개인의 시련과 성숙의 문제를 당대의 미국사회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로까지 확장한 캐서의 혜안을 살피는 작업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가 우리 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데 기여하고 인간의 실존적 가치와 책임감 있는 예술 정신 그리고 예술 행위의 윤리적 지표를 세워 궁극적으로 예술의 올바른 방향과 인류의 상생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향타가 되리라 기대한다.

## II. 생권을 위협받는 티어

캐서는 일찍이 『종달새의 노래』를 통해 대도시의 음식, 물, 공기, 소음, 인간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자유를 다면적으로 위협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인간 사회에서의 윤리의 확장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캐서는 먼저 비위생적인 음식이 전통적인 농업 생활 방식과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강조하며 깨끗한 참먹거리가 인간 성장의 원동력임을 밝히고자 이 작품에서 음식 윤리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만약에 누군가가 자신이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주체성(또는 정체성)은 의문시된다”(문종길 재인용 139)는 언급에 비추어 볼 때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티어가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을 느끼는 행위는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꿈을 좇는 과정에서 자신과 예술 공동체의 가치를 세우는 일과 관련된다. “그녀에게 있어 음식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예술을 생산할 수 있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변효정 69)이다. 그래서 윤리 없는 인간 사회의 위험성이 티어가 섭취하는 음식을 통해 드러나는데 어느 날 그녀는 형편없는 음식을 섭취한 탓에 편도염에 걸린다. 이는 단순히 가벼운 병증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인으로서의 티어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 이는 티어가 고향인 문스톤을 떠나 시카고의 더러운 환경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며 경험한 것으로 이곳에서 그녀는 독일인 요리사인 로크 여사(Mrs. Lorch)가 있던 하숙집에서의 짧은 시간을 빼고서는 대부분 너무나 형편없는 음식을 섭취한 탓에 몸이 상한다. 이처럼 몸에 좋지 않은 음식에다 늘 배가 고픈 시카고 생활로 인해 때때로 티어는 “차를 마실 때조차도 게걸스럽게 먹는”(185)<sup>1</sup>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는 음식으로써 그녀가 예술가로서의 주체성 및 가치를 세울만한 힘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모습과 연결된다.

그녀는 때때로 늦은 시간까지 레슨을 받고 집에 돌아오지만 너무나 지쳐서 저녁을 먹을 수 없었다. 그녀가 먹으려고 노력하면 나중에는 몸이 안 좋았다. 그녀는 침대에 널브러져 증발하는 느낌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이나 감정도 없이 어둠 속에 내던져진 채 누워 있었다.

<sup>1</sup> 이후 『종달새의 노래』 인용 내용은 페이지 숫자만 표기함

She sometimes came home from a late lesson so exhausted that she could eat no supper. If she tried to eat, she was ill afterward. She used to throw herself upon the bed and lie there in the dark, not thinking, not feeling, but evaporating. (115)

“음식을 먹는 행위에서 자기 통제와 절제라는 도덕적 의미가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는 것”(문종길 147)이라고 할 때 티어를 괴롭히는 이와 같은 허기와 건강을 위협하는 음식은 그녀가 아직 음악인으로서 확고한 주체성을 정립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에 인간이 자신의 몸을 통제하는 능력과도 연관이 되는 음식 섭취의 행위는 티어로 하여금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함에 있어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이 소설의 끝 무렵에 중요한 공연이 잡힌 날 뉴욕의 호텔에서 티어가 아랫부분이 타 있는 밀크 토스트를 받았을 때 여느 때와는 달리 채 주문을 함으로써 그녀가 예술가로서의 자신의 몸을 위협하는 상황을 통제하는 행위는 음식의 윤리적 섭취를 통해 그녀가 성장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 작품에서 생명 연장의 가능성을 지닌 “몸에 음식을 먹이는 행위는 신성한 것”(Meyer 104)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음식은 권력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여 시카고 문화 산업계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의 상품으로서 음식을 소비하고 음식을 통해 계급의식을 표출한다. 이는 개인을 특정 문화에 편입시키려는 강제적 의도를 지니고 있어 윤리적인 문제로까지 여겨질 수 있다. 특히 이들이 소비하는 붉은 고기는 최고의 음식으로 여겨지며 지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권력의 상징이 된다. 이처럼 캐서는 티어와 다음 세대의 더 나은 미래 구축을 위해 그녀의 성장에 중요한 먹거리에 대해 고민하고 음식 윤리를 통한 인간과 예술 생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19세기와는 달리 대도시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위생 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물과 공기로 전염이 되는 질병에 대한 관심이 팽배하였기에 이 작품에서는 장티푸스로 무척이나 위협을 받는 대도시 시카고<sup>2</sup> 속에서의 티어의 삶이 조명되고 있다. 수잔 마이어(Susan Meyer)는 “시카고는 강에서 물

<sup>2</sup> “시카고는 캐서가 처음으로 만난 거대한 모던 시티였다”(Homestead and Reynolds xi)는 점을 감안할 때 그녀가 이곳을 그녀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을 조달하는 다른 도시들과 달리 물을 끌어다 먹는 곳과 하수를 방출하는 곳이 같다”(99)는 점을 지적하며 위생의 문제를 진단한다. 이와 함께 결핵, 콜레라, 폐렴, 디프테리아, 장티푸스, 이질 등의 질병이 당시 위생 관련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며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인간의 생권이 치명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권 윤리란 인간 주변의 모든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정신이기에 이러한 위생의 문제는 곧 인간의 삶과 생명 그리고 그들이 갖는 꿈까지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된다.

티어는 어린 시절부터 창문이 닫힌 방, 시카고의 하숙집, 오페라 하우스, 레스토랑, 블라인드가 쳐진 호텔 등등 꽤나 빈번히 밀폐된 공간에서 지낸다. 특히 작품 초반부에 티어는 폐렴으로 인해 고열에 시달리며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독자들로 하여금 공기 오염으로 인해 그녀가 건강을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그런데도 그녀의 아버지 크론보그 씨(Mr. Kronborg)는 일곱 번째 아이의 임박한 출산일에 신경 쓰느라 티어의 이런 위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에 이 작품에서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는 티어의 스승인 호워드 아치 의사(Dr. Howard Archie)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조언을 하고 그녀를 위해 직접 창문을 열어 맑은 공기를 들임으로써 예술가로서의 티어의 몸을 보호한다. 아치 의사는 그녀에게 “노래를 하는 사람은 항상 맑은 공기를 듬뿍 들여야 목소리에 깊이가 있어지고 튼튼한 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36)고 조언하며 인간의 삶과 예술 추구 과정에서의 맑은 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런 아치 의사는 티어에게 예술 추구의 덕을 일찍이 가르치며 그녀를 “요람에서부터 예술인 대관식에 이를 때 까지 돕는다”(Giannone 88).

하지만 이 작품의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티어는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밀폐된 기도회에 있거나 탁한 공기의 대도시에서 지내게 되고 자신이 이용하는 철도 칸에서마저 기침을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계속해서 공기오염의 문제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 먼저 시카고에서 티어가 통근을 할 때에 좋지 않은 공기를 한 시간 반가량이나 들이마셔야 하는 상황은 오랜 연습으로 지친 그녀의 목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시카고에서 음악을 사사하다 고향인 문스톤에 다니러 갈 때조차도 티어는 기차 안에서 십대의 폐결핵 소녀와 마주 앉는 좌석에 앉아 있다. 이때 그 아이의 기침 소리 때문에 티어는 기차 안에서 하룻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녀의 건강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그녀는 이와 같이 지속적인 오염된 환경에의 노출로 인해 기력이며 신경이 날로 쇠약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티어의 현대적인 도시 생활 속에서의 위생의 문제 또한 그녀에게 위협으로 다가온다. 대부분의 시카고 하숙집이 “끔찍한 곳들”(105)로 묘사되듯 그녀 또한 축축하고 어두운 하숙집에서 지내며 잠을 자는 방을 청소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그녀는 침실을 매일 깨끗이 하고 폭풍우가 있는 날이나 한 겨울에조차도 항상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청하며 힘겨운 대도시 생활을 이어나간다.

그녀의 방은 온통 어둡고 축축했으며 곰팡이에다 카펫 아래에는 깊은 흙바닥이 있었고 벽도 더러웠다. 그녀가 현재 쓰는 방에는 수돗물이나 옷장도 없었고 피아노를 놓을 자리도 없어 공간 마련을 위해 그녀는 화장대를 옮겨야만 했다.

Her rooms had all been as damp and mouldy as they were dark, with deep foundations of dirt under the carpets, and dirty walls. In her present room there was no running water and no clothes closet, and she had to have the dresser moved out to make room for her piano. (183)

이외에도 “화물 트럭과 전차의 소음이 티어를 피곤하게 만들었다”(126)는 단적인 표현이 암시하듯 시카고는 소음 공해로도 티어의 정신과 육체를 고갈시킨다. 뿐만 아니라 시카고에서 화를 내는 듯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노여움 섞인 감탄사의 말들 또한 티어에게는 소음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음식, 물과 공기, 위생의 문제, 소음 이외에도 이 작품에는 생명을 경시하여 위협을 초래하는 일화도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방인에 대한 친절을 의미하는 필록세니아(philoxenia)”(도모노부 121)의 중요성을 전하는 일화로 인간 삶의 윤리가 다각적으로 진단되어야 함은 물론 개인윤리의 확장을 통한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티어가 15살이 되던 7월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집 앞 마당에서 그동안 본 사람 중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처량한 모습을 하고 끔찍한

악취를 풍기는 한 이방인을 보게 된다. 이 방랑자의 행색이 너무나 피죄죄하여 그녀는 가지고 있던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아 버틸 정도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더러운 광대 옷을 차려 입고 마을 술집 밖에 방울뱀 여섯 마리가 든 상자를 전시한 후 자신의 모자에 1달러씩을 주면 자신이 이 중 한 마리를 산 채로 먹겠다고 마을 사람들을 현혹한다. 하지만 문스톤 마을 사람들은 단번에 그를 무시해버리고 이후 그는 감옥에 하루 갇힌 뒤 마을을 떠나라는 경고에 따라 이 마을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이 배고픈 방랑자를 업신여긴 탓에 장티푸스에 걸린 그가 고의로 문스톤의 물 저장 급수탑에서 익사하여 여러 명의 마을 어른들이며 여섯 명의 어린 아이들을 죽게 만드는데 있다. 특히 이 일은 티어 또래의 소녀들을 포함해 그녀의 학급 친구들을 연달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라 생명 경시라는 윤리 위반과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진 티어는 아치 의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

아치 선생님, 제 생각에는 우리 마을 전체가 비난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저는 그 사람이 지나갈 때 제가 코를 틀어막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도 비난받아야 하고요. 아버지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는 그 술집에 가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줘야 했을 테고 그를 보살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 없어요;

It seems to me, Dr. Archie, that the whole town's to blame. I'm to blame, myself. I know he saw me hold my nose when he went by. Father's to blame. If he believes the Bible, he ought to have gone to the calaboose and cleaned that man up and taken care of him. That's what I can't understand: (91)

이와 함께 티어가 처음으로 유학 생활을 시작한 시카고에서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 또한 자연의 관리자로서의 대물윤리를 따르지 않고 예술계의 극단적 자율주의<sup>3</sup>를 보임으로써 티어의 생권을 위협한다. 그녀가 시카고 하숙집에서 만난 젊

<sup>3</sup> 예술을 도덕의 간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 자유롭도록 하자는 주장은 '예술에서의 극단적(절대적) 자율주의'라고 부른다(문종길 210).

은이들은 그녀가 침착하고 자주적이며 평정심을 가지고 예술에 정진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정작 티어 자신이 직접적으로 대면하며 음악을 공유하는 예술계 관계자들은 그녀의 이용가치에만 집중하는 결과주의자들일 뿐이다.

먼저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테오도르 토마스(Theodore Thomas)는 티어의 피아노 선생인 안도르 하사니(Andor Harsanyi)에게 그녀가 정말 육체적으로 강한지에 대해 궁금해 하며 자신은 “사업성이 있는 음성을 가진 소녀에 항상 관심이 많다”(133)고 이야기한다. 그와 함께 시카고에서 그녀의 목소리를 교정해 주는 스승인 메디슨 바우어즈(Madison Bowers)는 냉정하고 세속적이며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마치 실험실에서 일련의 실험을 하듯 그녀를 테스트하고 가르친다. 그는 “공연자의 노력을 눈에 띄게 무시하는”(161) 예술가로 자신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 콘서트에 간다. 그는 거기서 얼마나 별로인 음악이 연주되고 대중들은 또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지 확인하는 인물이다. 이런 그는 자신은 정작 소화불량증 약을 먹으면서도 티어에게는 “감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숨겨라”(170)라고 조언하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이런 바우어즈의 소리 교육에 상처를 입은 티어는 흡사 예술 공장을 운영하는 듯한 바우어즈가 사사하는 가수들에 몹시 지쳐 어느 날 하사니 부인(Mrs. Harsanyi)에게 “프로들인 캐서린 프리스트(Katharine Priest)와 마일스 머드스톤(Miles Murdstone)은 가장 최악이에요. 제가 프리스트를 위해 훨씬 길게 메시아를 연주해야 하면 미칠지경입니다”(166)라고 하소연한다. 이에 티어가 바우어즈의 교육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주목한 데브라 컴버랜드(Debra Cumberland)는 “육체적 정서적 자아에 기반을 두지 않는 예술은 여성으로서나 가수로서나 그녀에게 해롭다”(59)고 지적한다.

이밖에도 유대인인 헨리 네이던마이어(Henry Nathanmeyer) 부부 또한 시카고 예술계의 노시즘에 젖어 있는 탓에 티어 자체의 상품성에만 집중한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티어는 인간을 물화시키는 시카고라는 과도한 경쟁의 장에서 신경쇠약증(neurasthenia)에 시달리며 무척이나 힘든 음악 생활을 견뎌나간다. 그리고 이에 따른 티어의 신경쇠약증은 “20세기 전환기에 현대 사회라는 경쟁의 장에서 너무나 활발한 관여의 결과”(Clere 25)로 당시에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러한 진단을 더욱 자주 받았다는 점에서 티어의 시카고 유학 생활이 결코 만만치 않음

을 재차 증명한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대형 양조장의 셋째 아들인 프레드 오펜버그(Fred Ottenburg) 또한 도덕적 올바름을 지양하는 인물로 그는 풀만 빌딩의 꼭대기 층 레스토랑에서 차를 기다리며 티어에게 그의 아버지가 절벽 거주자들의 유물로 가득한 팬서 협곡(Panther Canyon)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풀만 빌딩은 “강철 골격으로 된 최초의 마천루이자 시카고의 비즈니스 협곡으로 불리는 건물”(Moore 102)로 조지 풀만(George Pullman)이 풀만 기차에서 낸 수익으로 만든 것이라 이 건물이 시카고 문화산업과 연관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는 시카고 문화산업의 속물성과 위험성을 드러내는 바 공명수는 이러한 문화산업이 “포터 파머(Potter Palmer), 조지 풀만(George Pullman), 그리고 마샬 필즈(Marshall Fields) 같은 백만장자 그룹들로 구성된 사고계 클럽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25)는 점을 지적한다. 그렇기에 티어가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으로의 환원을 통해 스스로 주변의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고 예술가로서의 참된 창의력과 인간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윤리를 회복하여 그녀가 자신의 음악적 주체성을 기를 수 있는 힘을 키워야만 한다.

### III. 대물 윤리를 실천하는 티어

도모노부의 대물 윤리는 예술계와 자연계를 포함한 인간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바라보며 인간이 자연의 가르침에 따라 겸손하게 개개인의 공적 의무를 이행하며 미래에 대한 존재론적 지속성을 갈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그가 지향하는 윤리는 다방면에 걸친 이해와 사랑이 수반된 덕목 창조의 확장된 윤리이다. 이런 덕목 창조와 관련하여 가정이 없음에 대한 윤리를 세워나가는 노력 또한 대물 윤리로 바라보는 도모노부는 “가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에는 완전한 가정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득을 볼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도”(94) 있음을 우려한다. 그는 현실적으로 부부가 이혼하고 살상까지 하는 사례에 대해 고민하기 때문에 결혼이 사회적 폭력이 될 수도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이 소설에서는 불행한 결혼의 사례를 통해 이것이 문제적 제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이혼한 가정사를 갖고 있는 아치 의사와 프레드 부부를 통해 증명된다. 특히 프레드는 그의 아내와 거의 떨어져 지내다시피 하는데다 그녀가 매독성 진행 마비증을 보이고 있어 그들의 결혼 생활은 위태로움 그 자체이다. “프레드의 아내는 강한 양성애 성향을 보이고 있어 그로 하여금 재난과도 같은 결혼에 굴복하게 한 인물로 그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다”(Trowse 220). 아치 의사 부부도 불안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데 그의 아내인 벨 화이트(Belle White)는 이 작품에서 사고사로 죽게 된다. 그녀는 병적으로 검소한 성향을 갖고 있는 탓에 가사 일에 대한 강박으로 가솔린을 닦다가 그만 폭발 사고로 불에 타서 죽게 됨으로써 불행한 결혼 생활의 말로를 보여준다. 이렇게 이 작품에는 불행한 결혼 생활이 조명되는 가운데 티어의 아버지인 크론보그 씨는 어느 날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티어가 가정을 꾸리지 않고 독신으로서 그녀의 꿈을 좇으며 진정한 예술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티어는 결혼을 할 만 한 부류는 아니지. . . . 애나야 뭐 머지않아 결혼해서 좋은 아내가 되겠지만 내 보기에 티어는 가족을 부양할 아이는 아니야. 티어가 그녀 안에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 꽤 있긴 하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 그녀는 자기 생각이 강하고 그녀만의 방식을 고수하길 좋아하니까. 그리고 그녀는 항상 모든 면에서 앞서 있어야 하니까.

Thea is not the marrying kind. . . . Anna will marry before long and make a good wife, but I don't see Thea bringing up a family. She's got a good deal of her mother in her, but she hasn't got all. She's too peppery and too fond of having her own way. Then she's always got to be ahead in everything. (67)

이 작품에서 티어의 고모인 킬리(Tillie)가 독신주의자로 설정된 이유 또한 캐시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그녀는 가정이 없이도 독립된 주체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려 깊은 킬리는 티어의 가치를 알아보는 가족으로 티어가 시카고에서 문스톤에 다니러 갔을 때 언니인 애나(Anna) 때문에 속이 상해 있는 그녀에게 “애나는 속 좁은 그런 사람이야. 네 부모님은 개의 말에 집중하지 않잖니. 애나는 까탈을 부려서 나는 그 아이와 있을 때 신경조차 쓰지 않는

단다”(156-57)라고 따뜻한 조언을 해줌으로써 그녀가 자신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돕는다.

틸리처럼 티어가 진정한 예술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는 인물들은 그녀가 올바른 덕을 갖춘 인재가 되는데 기여한다. 기차 차장 레이 케네디(Ray Kennedy)는 티어를 맹목적으로 돕는 조력자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충의 정신과 선의의 마음을 티어에게 심어주는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험금 600달러를 티어에게 장학금으로 남기는가 하면 문스톤에 함께 있을 때는 티어에게 사막 풍경을 소개해주고 최초로 아나사지(Anasazi) 절벽거주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며 그녀가 자연의 보존을 통해 예술의 보존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다. 그에게 있어 미의 실현이란 자연을 통한 아름다움의 실현이기에 그는 그녀가 원시안적인 자세로 예술의 미를 추구하여 단단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밖에도 레이는 세상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고 승자가 이기게 그리고 패자가 지게 하는 중간자적 인간(halfway people)이 있으니 그녀가 반드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티어와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문스톤의 스페니쉬 조니(Spanish Johnny)는 걸로 보기에는 알코올 중독자에 한 번씩 불시에 미치광이가 되기도 하는 인물이다. 하지만 테너 음성을 가진 그는 “현란하고 스킬 넘치게 만돌린을 타고 그의 음악에는 민족의식에 깃든 힘과 아름다움이 담겨”(Giannone 87) 있어 티어에게 영감을 준다. 그는 간혹 어떤 날 밤에는 술집에서 대중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자신의 목소리가 다할 때 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티어에게 귀감이 된다. 이밖에도 티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한 멕시코들은 재미를 추구할 줄 알면서도 음악을 좋아하는 부류로 비록 그들이 하층민이긴 해도 그녀가 시카고에서 1년간 사사한 후 문스톤에 잠시 다니러 갔을 때 그녀가 그들만의 음악에서 정서적인 자유를 느끼게 한다.

문스톤의 허 분쉬(Herr Wunsch) 교수는 콜러 여사네 거실에서 티어에게 피아노 레슨을 하기 전에 티어가 앉은 의자를 적당한 높이로 돌려 맞추는데 이는 유럽 고전 음악에 그녀가 노출되어 있는 동안 분쉬 교수가 상징적으로나마 그녀를 높이 들어 올리는 행위가 된다. 아울러 이는 “음악이 이 어린 소녀에게 주는 고조 효과를 암시”(Moore 77-8)하고 있다.

시카고에서의 피아노 선생인 하사니는 티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음악적인 아이디어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스승으로 그녀가 음악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사랑 또한 키울 수 있게 도와준다. 티어는 하사니의 도움으로 생애 최초로 심포니 콘서트를 관람한 후 벅찬 감정을 느낀다.

그 속에는 역시 고향이 있었다; 첫 기억, 아주 오래 전의 첫 아침, 새로운 세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영혼의 놀라움, 절망적인 것을 꿈꾸었던 새롭고도 오래된 영혼, 그것이 태어나기 전의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찬란한 것을 꿈꾸었던 영혼, 그것이 알지 못하는 것에 사로잡힌 영혼,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구름 아래 있었다.

There was home in it, too; first memories, first mornings long ago; the amazement of a new soul in a new world; a soul new and yet old, that had dreamed something despairing, something glorious, in the dark before it was born; a soul obsessed by what it did not know, under the cloud of a past it could not recall. (130)

하사니 부인 또한 티어에게 갖든 신뢰와 인격을 높이 평가하여 그녀가 “매우 멋진 사람이 될 것이고 대중들을 잘 헤아릴 수 있으리라 생각”(116)하며 그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밖에도 시카고에서 유학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 티어가 만난 하숙집의 모녀인 로크 여사와 앤더슨 여사(Mrs. Andersen)는 티어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그녀를 친절히 대해준 인물들로 낯선 도시에서 그녀에게 평화로움의 의미를 전해준다.

이처럼 덕 윤리를 실천하며 티어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 이외에도 이 작품에서 캐서는 특히 자연 속에서 티어가 예술가로서 재생하며 대물 윤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모습에 집중하고 있다. 티어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자연은 고향인 문스톤에서 그녀가 열세 번째 생일을 맞아 콜러 여사(Mrs. Kohler)로부터 받는 신선한 자연 그 자체이다.

팬지를 심고 있던 콜러 여사가 그녀의 모종삼을 떠올리고는 티어에게 린텐이 만개했을 때 너의 생일이 들어 있어서 행운이니 그녀가 사랑스러운 완두콩을 보러 가 야한다고 말했다.

Mrs. Kohler, who was transplanting pansies, came up with her trowel and told Thea it was lucky to have your birthday when the lindens were in bloom, and that she must go and look at the sweet peas. (48)

이후 시카고 유학 생활 도중 문스톤에 다니러 간 티어는 멕시코인 댄스파티에 가는 길에 만난 자연을 통해서도 도시 생활로 인해 지친 마음에 위안을 받는다.

티어는 천천히 걸었다. 부드러운 장밋빛 저녁이었다. 모래 언덕은 라벤더 천국이였다. 태양은 이글거리는 구리 원반처럼 저물었고, 동쪽의 양털 구름은 금빛으로 얼룩지며 불타는 장미 빛이었다. 티어는 미루나무 숲과 그 다음 역을 지나 보도를 나와 멕시코 타운으로 향하는 모래 길을 택했다.

Thea walked slowly. It was a soft, rosy evening. The sand hills were lavender. The sun had gone down a glowing copper disk, and the fleecy clouds in the east were a burning rose-color, flecked with gold. Thea passed the cottonwood grove and then the depot, where she left the sidewalk and took the sandy path toward Mexican Town. (148)

이처럼 티어는 “그녀가 사막에서 감수성을 키우고 활발한 상상력을 키운다”(Doležal 279)는 언급처럼 시카고에서의 힘든 유학 생활 중에도 문스톤 사막의 풍경을 자신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노래로 가득한 진정한 고향으로 생각하며 위안을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일찍이 자연 속에서 충만감을 느낀 티어는 훗날 프레드가 그녀로 하여금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며 햇빛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팬서 협곡으로 그녀를 안내했을 때 “그녀가 그간 본 적이 없는 엄청난 숲”(189)인 그곳에서 대물 윤리의 절정을 경험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고양되게 된다. “원시그대로의 전근대적인 생명력”(Meyer 110)의 터전인 팬서 협곡에서 티어는 깨끗한 물과 공기와 음식 그리고 옛 선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두루 경험한다. 특히 팬서 협곡에서 맑은 물로 목욕을 하는 티어는 자연의 생명력을 수혈 받으며 자연 그 자체와 일체감을 느낀다. 이때 “깨끗한 물은 삶의 메타포이자 은유적으로 예술과 얽혀 있다”(Meyer 110)는 점에서 티어의 삶을 선의로 이끈다.

티어가 그녀의 목욕을 협곡의 바다, 목화나무의 뒤 양지바른 웅덩이에서 했을 때, 그녀는 때때로 마치 이 물이 그토록 많은 헌신과 욕망의 대상에서 기인한 독립적인 성격이 있는 것처럼 느꼈다. 이 개울은 수세기 전 이 협곡에서 연주되었던 드라마에서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생명체였다. . . . 티어의 목욕은 제의적인 엄숙함을 품고 있었다. 이 협곡의 분위기는 제의적이었다.

When Thea took her bath at the bottom of the canyon, in the sunny pool behind the screen of cottonwoods, she sometimes felt as if the water must have sovereign qualities, from having been the object of so much service and desire. That stream was the only living thing left of the drama that had been played out in the canyon centuries ago. . . . Thea's bath came to have a ceremonial gravity. The atmosphere of the canyon was ritualistic. (194)

그리고 이 순간 티어는 “가정적인 것들과 예술적인 것들, 동시대적인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통합한다”(Clere 36). 이곳은 티어에게 있어 윤리의 영역 그 자체이기도 하며 이처럼 그녀의 행복을 최대화시키며 그녀의 정신을 고양시킨다.

이곳에서 지붕과 돌바닥으로 된 집처럼 보이며 건축의 미를 느끼게 하는 바위산 또한 “티어의 솟구치는 예술적 원칙들과 우선순위들을 강조한다”(Kephart 25). 깊은 계곡이 있는 화강암으로 된 아름다운 이곳은 티어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라라미 평원(Laramie Plain)에 들렀을 때 보았던 와이오밍의 바위 전경을 떠오르게 할 정도이다. 그래서 티어는 한 때 이곳에 살았을 사람들을 상상하며 대물 윤리 구현의 참된 의미를 자신의 예술 세계에 견주어 되새기게 된다. 특히 절벽 거주지로 올라가면서 티어는 상상 속에서 자신의 등에 업힌 원주민 아기의 무게를 생각해 보며 고대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낀다. 이는 티어가 원주민의 덕을 통해 감화되며 사색의 윤리를 실천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20세기에 미국인들은 원주민의 삶을 단순하고도 진정한 삶으로 여겼고 이를 힘이 빠지게 만드는 모더니티의 혼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강한 해독제로서 바라보았다”(Clere 25).

이렇게 “고대 사람들(The Ancient People) 장은 사람들이 너무나 붐비는 장소들 사이에서 창을 열어서 팬서 협곡의 신선한 공기를 들이는 비유적인”(Moseley 245) 역할을 한다. 티어는 태양에 달궈진 클리프 거주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또한 좋아한다. 이곳은 태양이 충분히 비치는 고층 절벽의 등지와

도 같은 곳으로 그녀에게 예술적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자신의 직관이 발달되어 갈수록 티어는 예술가로서의 삶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그녀는 이곳 바위의 음악적이고 리듬감 있는 패턴들, 일출과 일몰, 그곳에 사는 동식물의 소리와 주기에 활력을 얻는다”(Kephart 29). 클리프 거주자들의 오두막에서의 그녀의 하루하루는 예술이 항상 그녀의 인생에서 필수적인 것들 중 하나였음을 각인시킨다. 나아가 티어는 원주민의 유적을 보면서 도레이의 조언대로 “이 모든 것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곳에 잠든 사람들의 욕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었다”(195)고 생각한다. 특히 물이 일회성의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이곳의 도기 그릇들은 티어가 자신을 그릇처럼 인식하고 시카고에서 참아야만 했던 역겨운 인물들과 혼란스러웠던 기억을 비워내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이 깃든 질그릇 조각들을 통해서 그녀는 그녀가 “이곳의 원주민들이 그러한 갈망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아름답게 그것을 표현했다”(Swift 6)는 점을 인식한다. 그리고 티어는 원주민들의 유물을 보고도 이를 자신이 수집하고 싶은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성숙함을 보이고 있어 헨리 빌트머(Henry Biltmer)와 대조된다. 프레드 목장의 늙은 독일인 관리자인 헨리는 나중에라도 독일에 가져갈 요량으로 절벽 거주자들의 유물을 큰 상자 분량으로 모아두는 속물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팬서 협곡에서 생동감 있는 생명력으로 신경쇠약증을 벗어나는 것 같다”(Swift 7)는 느낌을 받는 티어는 이제 시카고 생활동안 겪은 우울증을 극복하고 “실존적 재생”(Doležal 278)을 한다. 그래서 샤론 오브라이언(Sharon O'Brien)은 이곳에서 그녀가 “예술가로서 다시 태어난 것인데 좀 더 나아가 대지(earth)의 딸, 여성 도공, 자력으로 어머니로서 태어난 것”(417)이라고 언급한다. 캐서는 티어가 이곳 팬서 협곡에서 “필립 드로리아(Philip Deloria)의 용어인 토착민의 역할을 해보는 것”(Clere 21)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그녀가 그들의 문명화가 덜 된 윤리적 가치를 자신의 예술에 내재화 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 것이다.

이제 티어는 뉴욕에서 자연의 특성을 지닌 목소리로 지그린드(Sieglinde)를 연기할 기회를 얻게 된다. 리허설도 없이 무대에 선 티어가 지그린드 연기의 클라이맥스의 순간에 오랫동안 완벽을 기해 단련하고 다져온 그간의 역량들을 모

두 발산할 때 그녀는 자연스럽게 진정한 예술가의 반열에 들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지그린드 연기는 제 때에 실천되어야 하는 정각성의 덕을 실천하고 있어 그녀의 결실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한다.

그녀가 무대 위에 있을 때 그녀는 모든 몸짓이 바르다고 인식했고 그녀의 몸이 정말로 그녀의 생각을 담아내는 악기라고 여겼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녀의 몸은 그러한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얼굴, 손가락 끝에서 형용할 수 없는 생명력이 꽃피었다. 그녀는 꽃을 피우는 나무 같았다. 그녀는 만개하는 나무처럼 느껴졌다. . . . 그녀 안의 모든 것이 최고조에 있었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작용했다.

While she was on the stage she was conscious that every movement was the right movement, that her body was absolutely the instrument of her idea. Not for nothing had she kept it so severely, kept it filled with such energy and fire. All that deep-rooted vitality flowered in her voice, her face, in her very finger-tips. She felt like a tree bursting into bloom. . . . Everything in her was at its best and everything working together. (306)

뿐만 아니라 “그녀가 오페라 가수로서 공연을 할 때, 그녀는 자신의 노래를 듣는 많은 청중들을 고양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녀의 주변 사람들을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Moore 78). 이처럼 위대한 오페라 가수로서의 성공을 거둔 티어는 이제 프레드에게 “나는 팬서 협곡을 떠나서 어딘가에 서 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296)라고 고백하며 그녀가 옛 선조들과의 의미 있는 접촉을 한 경험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전한다. 그리고 이제 팬서 협곡에서 절벽 거주자들의 더 깊고 높은 책임감을 배운 티어는 친척들이며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이런 그녀가 있는 수직 절벽과도 같아 보이는 뉴욕의 14층 호텔을 바라보며 아치 의사는 “그녀가 성공적으로 절벽 거주자가 되었다”(Moore 110-11)고 이야기하며 그녀의 성공에 기쁨을 표한다. 프레드 또한 그녀가 “팬서 협곡에 있는 것 마냥 무대에 있을 때 집에 있는 듯 편해 보이고 그 모습이 마치 새장에서 방금 나온 것 같은 느낌이다”(295)고 전한다.

이제 티어는 자연을 통해 대물 윤리를 실천하고 예술의 가치 있는 보존을 이뤄 낸 진정한 예술 에티카(arti-ethica)의 구현자로 거듭나 있다. 이처럼 티어의 윤리적 반성을 통한 음악가로서의 성공은 자연과 고대 사람들에 대한 경외감 및 자연에의 인간 책임 문제와 도덕 문제를 경험하며 확장된 자아 체험을 한 결과로 그녀가 대물 윤리의 정신을 실천함으로써 예술의 덕목을 확장하였음을 증명한다.

#### IV. 결론

도덕과 윤리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이슈가 되는 현대 사회에서 윤리의 부재는 인간 삶의 전반을 잠식하고 인간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윤리는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의 문제를 강조하며 인간의 올바른 행동 양식을 조명하기에 이 작품의 주인공인 티어가 예술 윤리의 바람직한 구현을 통해 진정성 있는 예술가로 성장하게 한다.

『종달새의 노래』에서 캐서는 티어가 그녀 고유의 예술적 비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녀의 생권을 위협하는 주변 환경과 속물적인 인물들뿐만 아니라 돌봄의 윤리를 실천하는 그녀의 조력자들을 함께 조명하며 자연경험에서 나오는 그녀의 궁극적인 도덕적 용기가 예술 생권의 대안이 될 수 있음에 집중한다. “창조적인 정신이 몸과 분리될 수 없음”(Doležal 285)을 감안하여 캐서는 팬서 협곡에서 티어로 하여금 몸소 자연의 가치와 원주민의 덕을 흡수하여 예술적인 통달에 이르게 한다. 티어는 이곳에서 몸의 자유를 느끼고 비록 사라진 자들이지만 고대 사람들과의 일체감을 형성하며 그들이 예술을 대하는 참된 자세와 불멸성의 덕을 통해 진정한 도덕적 책임감을 내재화한다.

예술이 아름다움을 목표로 한 인간의 의도적 활동과 관련된 만큼, 예술은 종종 미적인 것만이 아닌 윤리·종교·정치·사회적 동기와 의미를 갖고 창작되고 감상되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술과 도덕의 관계를 살펴야 하는 이유이다(문종길 204-5).

캐서의 현대 미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잘 알려진 바로 그녀는 이 작품에서 인간의 몸을 위협하는 환경과 물질주의 그리고 예술 지상주의에 젖어 예술계의 생권을 위협하며 인간의 내면을 소거하는 속물적인 인간들을 비판한다. 펜실베이니아 광산촌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열두 살에 한 쪽 눈을 잃은 하사니, 복잡한 시카고 도시 생활 속에서 신경 쇠약증을 겪는 티어, 문스톤 마을에 나타나 마을 주민들에게 생명 경시의 뼈아픈 교훈을 남긴 한 이방인, 인간이 가진 기능에만 집중하여 개인의 인격을 소거하고 그 이용 가치만을 타진하는 인물들이 모두 그 증거가 된다. 이와 함께 “캐서는 항상 도덕적, 정신적, 예술적 발전의 위계에 관심을 가졌다”(Giannone xi)는 점에서 예술가의 몸을 위협하는 더러운 공기, 물, 음식, 소음 등에도 윤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는 이 작품에 면면히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캐서에게 음악은 창의적인 부분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도덕적인 문제이기에 언젠가 프레드가 티어에게 상류층의 삶이 참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러한 삶은 대단히 끔찍한 것이라고 단호히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결국 티어는 인간 윤리의 확장 문제를 예술을 통해 보여주며 “경계를 넘나드는 무한한 공간을 제시”(Giannone xi)하는 바그너 음악의 디바(Wagnerian diva)로 거듭남으로써 행위를 전제하는 덕 윤리의 실천자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캐서는 이 작품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술적인 성장이 정제된 참됨(truthfulness)이다. . . . 위대한 예술가들만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305)고 전한다.

윤리의 현실적 요청은 개인과 공동체의 덕의 실천을 강조하는 바, 이처럼 티어가 균형 있는 예술의 실천자가 되어 무대에서 성공한 모습은 조 앤 미들턴(Jo Ann Middleton)의 언급대로 “캐서가 독자들에게 그녀의 비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준다”(77)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마침내 티어가 성공적으로 예술 행위의 윤리적 지표를 세운 것은 인류와 미래 세대에게 예술의 올바른 방향과 상생의 정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회변화의 방향타가 되고 있다.

## Works Cited

- Bennett, Mildred R. *The World of Willa Cather*. New York: Literary Licensing, 1951. Print.
- Byun, Hyojeong. "An Aspect of Thea's Overcoming Disgust in *The Song of the Lark*." *American Fiction Studies* 23.2 (2016): 63-83. Print.  
[변효정. 「『중달새의 노래』에 나타난 티어의 혐오 극복 양상」. 『미국소설』 23.2 (2016): 63-83.]
- Cather, Willa. *The Song of the Lark*. Mineola, New York: Dover Publications, 2004. Print.
- Clere, Sarah. "Thea's Indian Play in *The Song of the Lark*." *Willa Cather and Modern Cultures*. Eds. Melissa J. Homestead and Guy J. Reynolds.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2011. 21-44. Print.
- Cumberland, Debra. "A Struggle for Breath: Contemporary Vocal Theory in Cather's *The Song of the Lark*." *American Literary Realism* 28.2 (1996): 59-70. Print.
- Doležal, Joshua. "Re(con)ceiving Experience: Cognitive Science and Creativity in *The Song of the Lark*." *Willa Cather at the Modernist Cruc*. Eds. Ann Moseley, John J. Murphy, and Robert Thacker.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2017. 271-88. Print.
- Ehrlich, Paul R. "Ecoethics: Now Central to All Ethics." *Bioethical Inquiry* 6 (2009): 417-36. Print.
- Giannone, Richard. *Music in Willa Cather's Fiction*.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2001. Print.
- Homestead, Melissa J. and Reynolds, Guy J. "Introduction." *Willa Cather and Modern Cultures*. Eds. Melissa J. Homestead and Guy J. Reynolds.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2011. ix-xx. Print.
- Kephart, Christine E. *The Catherian Cathedral*. Madison · Teaneck, Fairleigh Dickinson UP, 2012. Print.
- Kong, Myungsu. "The Organic Relation with a Natural Desire and an Artistic Spirit in *The Song of the Lark*." *Modern Studies in English & Literature* 56.3 (2012): 19-36. Print.  
[공명수. 「『중달새의 노래』. 자연욕구와 예술정신의 유기적 상관성」. 『현대영어영문학』 56.3 (2012): 19-36.]
- Meyer, Susan. "Contamination, Modernity, Health, and Art." *Willa Cather and the Nineteenth Century*. Eds. Anne L. Kaufman and Richard H. Millington.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2015. 97-115. Print.
- Middleton, Jo Ann. *Willa Cather's Modernism: A Study of Style and Technique*. Rutherford: Fairleigh Dickinson UP, 1990. Print.
- Moon, Jonggil. *Life and Ethics*. Seoul: Booknamu, 2016. Print.  
[문종길. 『생활과 윤리: 실천과 응용으로서의 윤리학』. 서울: 책나무, 2016.]

- Moore, Michelle E. *Chicago and the Making of American Modernism*. London ·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2019. Print.
- \_\_\_\_\_. “Chicago’s Cliff Dwellers and *The Song of the Lark*.” *Willa Cather and Modern Cultures*. Eds. Melissa J. Homestead and Guy J. Reynolds.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2011. 93-113. Print.
- Moseley, Ann. “Elements of Modernism in *The Song of the Lark*.” *Willa Cather at the Modernist Crux*. Eds. Ann Moseley, John J. Murphy, and Robert Thacker.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2017. 229-52. Print.
- O’Brien, Sharon. *Willa Cather: The Emerging Voice*. New York: Oxford UP, 1987. Print.
- Swift, John N. “Willa Cather In and Out of Zane Grey’s West.” *Willa Cather and Modern Cultures*. Eds. Melissa J. Homestead and Guy J. Reynolds.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2011. 1-20. Print.
- Imamichi, Tomonobu. *Eco-Ethica*. Trans. Myunghwan Jeong. Seoul: Guiparang, 2013. Print.  
[이마미치 도모노부. 『에코 에티카』. 정명환 옮김. 서울: 기파랑, 2013.]
- Trowse, Nadeane. “Willa Cather’s Condition: Disease, Doctors, and Diagnoses as Social Action.” *Cather Studies* 4. Eds. Robert Thacker and Michael A. Peterman. Lincoln and London: U of Nebraska P, 1999. 205-24. Print.

변효정 (대진대학교/교수)

주소: (11159) 경기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창의미래인재대학

이메일: byunglish@gmail.com

논문접수일: 2019. 3. 31. / 심사완료일: 2019. 5. 14. / 게재확정일: 2019. 5. 19.